
第128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敎育委員會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1年9月11日(火) 午後2時

場所 文化敎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立體育施設設置및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市立大學校生活體育學科新設에 관한請願
 3. 서울市立大學校懸案業務報告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立體育施設設置및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2. 서울市立大學校生活體育學科新設에 관한請願(趙養鎬 議員
紹介) ... 2面
 3. 서울市立大學校懸案業務報告 ... 3面
-

(14시 17분 개의)

○委員長 劉俊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문화敎
育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의결하지 못한 서울특
별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
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생활체육학과 신설에 관한 청원, 서울
시립대학교 현안업무보고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立體育施設設置및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長 提出)

○委員長 劉俊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체육 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제1차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이미 마쳤으며, 개정내용에 대한 별다른 이의는 없었으나 월드컵경기장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행사 여부를 명확히 한 다음에 의결하자는 김성환 위원의 제안이 있어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가 되어 해소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2. 서울시立大學校生活體育學科新設에 관한請願(趙養鎬 議員 紹介)

(14시 20분)

○委員長 劉俊相;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립대학교 생활체육학과 신설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지난 4월 19일 제126회 임시회 제1차 우리 위원회 회의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보류한 상태로 현재까지 지나 왔습니다만 7월 26일 생활체육정보학과 신설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본 청원의 목적이 실현된 바 있습니다.

청원의 목적이 실현된 만큼 안건으로 다룰 실익이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생활체육학과 신설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립대학교 생활체육학과 신설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市立大學校所管懸案業務報告

(14시 22분)

○委員長 劉俊相;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 총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長 李棟;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대학의 주요 보직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대학원장 노희일, 교무처장 한형수, 학생처장이우태, 기획발전처장 최용선, 사무처장 박용래, 법정대학장 권기범, 공과대학장 김창민, 도시과학대학장 김창석, 예술대학장 박한진, 중앙도서관장 안철원, 전자계산소장 민현수)

몇 분의 교수는 오늘 수업하고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립대학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2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과 입시업무입니다.

생활체육정보학과를 신설해서 2002학년도부터 새로 모집하게 되며 부족한 IT인력 수급문제에 대비해서 컴퓨터통계학과에 2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대학원을 포함한 4개 대학원의 정원을 101명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정원조정은 수도권 소재 국·공립대학 중 서울시립대학에서만 증원을 승인받았으며,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수시 1학기 모집으로 2001학년도 수능시험 우수자 50명을 선발하였고, 수시 2학기 모집으로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장 추천학생, 소년소녀가장, 독립유공자 직계손자녀, 청백리상 수상 공무원 자

녀 등 총 377명 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학생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학생관련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2학기 개강에 맞춰 설치·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지난 여름 방학 중에는 외국어시험 우수학생 191명을 선발해서 유럽과 미주 지역 해외견문 여행경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셋째로 교육환경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서울21세기관 공사가 공정 98%로 마무리 단계이며, 강의실과 교수연구실에 공간부족이 크게 해소되게 되었으며, 환경디자인관 신축공사는 금년10월 공사발주를 목표로 설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넷째, 여름방학 중에는 서울시 건축, 토목, 전기분야 5·6급 공무원에 대한 8주간의 교육과 지방세 담당공무원인 세무직 6·7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정에 기여하였으며, 서울시 전문인력의 임용을 위하여 지적, 환경분야 등 5개분야 학생을 선발하여 시정 전문분야 맞춤형교육을 시행하여 서울시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기획발전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동 총장님은 이석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동 총장님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현안위주로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기획발전처장 최용선입니다.

총장님께서 중요한 현안업무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안 업무 중심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시립대학교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柳辰永 委員; 유진영 위원입니다.

15쪽예요, 교수증원 관계가 있는데 작년에 2001년도에도 16명이나 증원이 되었네요. 금년에 또 17명을 증원하게 되었는데요. 교수임용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敎務處長 韓亨洙; 교무처장 한형수입니다.

유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채용은 먼저 초빙분야에 대해서 각 학과 학부 교수회의를 통해서 초빙분야가 정해지면 그것을 본부에서 심의해서

그것을 공개채용의 형식을 받기 위해서 국내신문과 해외신문에 공고를 냅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지원한 교수 지원대상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기초심사에 해당되는 과정으로 전공적부심사를 하게 됩니다. 학과 학부교수들 전체회의에서 지원자가 초빙분야에 적합한 전공을 했는가 하는 것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본 심사에 들어갈 3인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본 심사에 들어가서 3인에 대한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실적평가 70%, 연구공개발표평가 20%, 면접심사 10%, 이것이 종합돼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가 선정이 되면 그 가운데 1인을 총장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총장이 임용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됩니다.

○柳辰永 委員; 심사위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敎務處長 韓亨洙; 심사위원은 학과교수 전체 가운데 최소한 2/3 이상이 심사에 참여해서 평가한 평가의 평균점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과의 교수가 4인 미만인 학과는 교내외를 통해서 전공에 맞는 교수로 4인을 채워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柳辰永 委員; 그러면 몇 분이나 등록을 하게 됩니까?

○敎務處長 韓亨洙;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柳辰永 委員; 탈락한 사람은 보통 몇 명이나 돼요?

○敎務處長 韓亨洙; 그러니까 지원자가 많지 않은 분야는 두세 명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기십명이 지원하는 분야도 있고 그 편차가 심합니다.

○柳辰永 委員; 다음에는요, 선발기준은 객관성 있게 하는지, 어떻게 객관성 있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務處長 韓亨洙;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기초심사에는 학과 학부 전체 교수회의에서 지원자가 초빙하려는 전공에 부합되는 전공을 했느냐 하는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석·박사학위 취득학과 및 분야에 대해서 60%, 학사학위취득에 맞느냐 여부에 따라서 20%, 그리고 학위취득 이후의 연구활동 20%의 비율로 평가해서 60점 이상의 평가를 받는 자가 전공적부심에서 적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득점을 하게 되는 3인으로 축소를 해서 그 3인으로 본 심사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실적을 지원자가 평가받겠다고 우선순위를 둔 실적물 200%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실적물 외에 또 연구공개발표를 해서 교수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학생들까지 참여한 자리에서 연구공개발표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마지막 총장이 주관하고 교무처장, 당해 학장 및 당해 학과장이 심사하는 면접심사에 참여해서 연구실적평가 70%, 공개발표평가 20%, 면접심사 10% 이것을 종합해서 최고득점자와 차점자를 총장에게 올리는 그러한 심도 있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柳辰永 委員; 향간에 시립대학교 교수는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敎務處長 韓亨洙; 그것은 저희 시립대학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나라 대학 전반이 거의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해부터 아직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시다만, 대개 저희들에게 지금 전언되기로는 정년보장을 받은 정교수 외에 부교수 이하의 교수, 그러

니까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경우에는 종래의 재임명제가 계약제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연봉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년보장을 받지 않은 그러한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교수들 상호간에도 경쟁이 치열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바로 바뀌는 것이 아주 목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柳辰永 委員; 교수 임용하는 데 많은 어떤 비리나 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회에서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립대학교만큼은 보다 신뢰 있고 객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務處長 韓亨洙; 위원님 조언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하게 하겠습니다.

○柳辰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成浩 委員; 김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학과 문제 쪽으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생활정보체육학과. 어느 분이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기획발전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金成浩 委員; 지금 시립대학교에서는 엘리트 체육학생들이 지금 3학년, 4학년밖에 없지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그렇습니다.

○金成浩 委員; 1·2학년을 안 뽑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안 뽑았습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저희가 1999년도에 2000년도부터는 교육부가 체육학과가 없는 대학은 체육특기생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저희 학교도 2000년도, 2001년도에 체육특기자 신입생 모집을 중지했습니다.

○金成浩 委員; 그러면 내년에 생활정보체육학과 40명을 문교부의 승인을 받았지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金成浩 委員; 그러면 어떤 학생들을 뽑습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저희가 생활체육정보학과를 설립한 기본적인 목적이 국민생활 수준향상에 따라서 건강과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고조, 따라서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 생활체육관련 조직이 설치되고 민간차원의 체육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도자 및 체육시설 전문관리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교육적 자질을 갖춘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저희가 생활체육정보학과 신설을 요청을 했고, 체육분야의 세계적 흐름이 현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심리학 등 체육과학적인 종합지식체계 연구 및 교육의 방향으로 큰 흐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부가가치 생활체육 정보제공을 위해서 체육정보를 과학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고급 체육정보체계를 구축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 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좀 스마트한 아이들을 학력, 물론 기초체력이 중요한 선발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지도자적인 그러한 자질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서 체육정보를 서비스화하고 지도할 전문화된 고급인력을 양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成浩 委員; 그런데 지도자, 학문적으로만 체육정보학과

를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동한 선수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위원님께서 말씀이 생활체육보다는 실제로 엘리트체육을 하는 아이들이 운동에 있어서는 더 일반학생보다 탁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이 엘리트스포츠육성책을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 5공 이후에 정부의 체육진흥정책의 일환으로 각 공공단체에 비인기 종목의 운동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역시 정구부를 설치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체육정보학과를 신설하면서 이미 입학해 있는 체육특기생들의 처리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교내에 전반적인 공감대가 저희 교육부 또 서울시가 승인한 대로 체육정보·체육과학화에 주로 치중을 해서 그러한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金成浩 委員; 제가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엘리트체육은 축구, 배구 그 다음에 양궁, 복싱, 핸드볼이 있죠, 5개 종목. 그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저희 학교로서는 정구부밖에 없습니다. 정구부의 학생들이 3·4학년에 있고.....

○金成浩 委員; 왜 정구부밖에 없습니까? 방금 총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정구만 있다고 그러면.....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저희 학교가 체육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구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金成浩 委員; 엘리트체육이 우리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정구밖에 없다 이겁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저희 학교에 말씀입니다.

○金成浩 委員; 학교에서 여기 하는 거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학교에서 유지하고 있는 운동부가 정구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시가 운영하는 축구, 배구, 육상, 복싱, 양궁, 이것은 서울시에 팀이 되어 있고 학생신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金成浩 委員; 그러니까 학생신분이 몇 분이나, 내가 물어봤는데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金成浩 委員; 몇 명이나 됩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지금 토털 34명이 되고 있습니다.

○金成浩 委員; 34명, 그러면 생활정보학과 엘리트체육을 안 뽑겠다고 우리 시립대학교 회의가 있었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金成浩 委員; 그 회의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저희 학과의 기본정책은 저희 체육위원회와 또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교무위원회와 체육위원회가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金成浩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서로, 총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저하고 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회의결정을 딱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회의를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보직간부회의인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金成浩 委員; 회의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느냐 이거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저희 기획위원회는 회의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金成浩 委員; 제가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그것을 한번 딱 우리 최고회의에서 결정해서 생활정보학과에서 엘리트체육은 뽑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한 건데 지금 그런 결정이 안나 있는 상태에서, 총장님하고 말씀한 것하고 전혀 틀리니까 제가 그러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위원님 제가 말씀하는 것과 조금 다른 각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학교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사안별로 교무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무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기획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엽니다. 그 기획위원회에서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金成浩 委員;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회의의 구체적인 안은 제가 알고 싶지 않고, 단 우리 시립대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을 안 뽑기로 방침을 내렸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방금 이야기한 정구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체육의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돼야 이런 생활체육정보도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또 우리 시립대학교측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쪽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세계의 흐름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 판단하고는 좀 틀리니까 묻는 것이고, 단 제가 서울시정구연맹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여자실업팀은 기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남자실업팀도 올 6월에 서울시장님한테 3억을 받아서 곧 구청에서 창단이 됩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는 정구팀을 신설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학에서 전혀 안뽑아 버리니까 완전히 지금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이야기를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다른 종목은 테니스라든가 축구라든가 유도 부분은 인기가 있어서 학교자체에서 안 뽑아도 시립대학이나 어떤 학교에서 안 뽑아도 자연발생으로 운동선수들이 커 나가는데 이 정구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종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정구가 특히 연식정구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간 국가정책에 의해서 제가 팀을 가지고 있었습시다만 정구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국가적인 명제라면 이것은 저희 시립대학교가 수행을 책임질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가가 판단해서 국가가 담당할 몫이고, 이러한 엘리트스포츠의 육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학인 한국체육대학 등이 맡아야 될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成浩 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세계연맹회장도 연식정구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떠나서 전국체육대회나 소년체육대회에 가보면 우리 서울이 항시 타도 경기도한테 밀려서 2등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은 지금 우리 서울에 많이 있지만 체육학과가 다른 지방에 있어서 전혀 우리 서울시가 한 5년 동안 우승 한번을 못한 것이 전국체전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잘 모르십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그렇습니다.

○金成浩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도 좀 체육부분에서 경기도 같은 데 1,000억의 기금을 마련하고 우리도 한 500을 만들기 위해서도 서울시에서도 조례개정까지 해서 기

금도 마련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립대학교에서 거기에 걸맞게 체육학과를 엘리트체육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설 생각 없습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이 자리에서 제가 보직교수로서 이렇다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학에 합의를 하는 절차와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金成浩 委員; 3학년이 지금 몇 명 있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3학년이 지금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浩 委員; 4학년도 4명인가 있죠? 그리고 새로 신설 돼서 뽑으면 연관도 있고 또 시립대학교에서 그래도 비인기 종목 연식정구로 학생을 기른다 하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어떻게 한번 잘 생각해서 총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알겠습니다.

○金成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車星煥 委員; 저도 계속해서 학과신설과 관련해서 좀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정보학과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명칭을 올릴 때는 어떤 학과였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당초에는 저희가 생활체육과라는 명칭으로 올렸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때가 언제였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생활체육과로 저희가 서울시에 시립 대학교 운영위원회에 통과한 것이 지금 제가 5월로 기억을 하는데.....

○車星煥 委員; 좋습니다. 5월로 일단 하고요. 생활체육과로 올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서울시 운영위원회에서는 생활체육과로 신설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교육부와의 그러한, 교육부에 신청과정에서 제가 애초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생활체육이 아니라 체육정보의 과학화라는 것이 저희 기본 설립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렇다면 생활체육정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車星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반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반려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車星煥 委員; 서로 협의를 해서.....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그렇게 저희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권고를 하고 또 그 당시 정부가 IT분야, BT분야, 이러한 정보분야에 역점을 두어서 신입생 모집의 정원을 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교육부로서도 이런 정보 쪽을 조금 더 강조를 하면 자기들의 학과신설에 부담이 적겠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 끝에 생활체육정보학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때 협의는 누구하고 했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교육부의 담당과장이, 제가 이름을 생각하지 못 하겠습니다만.....

○車星煥 委員; 아니, 좋습니다. 그것은 교육부로 하고요.

그러면 공고를 받고 시립대에서는 누가 이것을 검토를 했나
이거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제가 검토했습니다.

○車星煥 委員; 단독으로 했습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아닙니다. 저희 기획위원회와 또
체육관련 교수님들과 협의 끝에 생활체육정보학과가 오히려
원래의 취지에 더 맞는다 해서 명칭을 변경해서 신청했습니
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서울시운영위원회는 다시 거치지는
않았습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거쳤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을 해서.....

○車星煥 委員; 또 상정을.....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운영위원회에서 서면결의를 했
습니다.

○車星煥 委員; 서면결의를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그 한 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다 소집하기가 어려워서 서면결의로 했습니다.

○車星煥 委員; 한 건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서 서면결의를
하셨다 이거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車星煥 委員; 그러면 시립대학교에서 당초 올릴 때는 생활
체육쪽에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하고도 예전에 상임위원회에
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생활체육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분
야가 필요하고 생활체육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학과를
증설하겠다고 당초 목적대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

지니까 교육부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정보학과라는 IT분야를 추가를 시키면 가능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생활체육에다가 정보라는 것을 합쳐서 설립허가를 받아낸 것 아닙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저희가 설립목적은 제시할 때도 체육의 과학화, 정보화를 통한 과학화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 잠깐만요. 그것이 좋은 말씀 같은데 요즘은 체육뿐 아니라 모든 것이 과학화되고 모든 것이 정보화되는 추세예요.

그런데 생활체육정보학과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정보를 추진하려는 거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체육정보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의 교육이라는 것이.....

○車星煥 委員; 아니, 잠깐만요. 지금 모든 것이 체육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종교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있어요. 지금 되고 있잖아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그런데 체육분야가 제일 떨어집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 떨어지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성호 위원님 지적에서도 나왔지만 당초 학교에서 체육지도자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하고 정보분야, 이것하고 지금 학교에서 뭔가 약간 설명이 부족한 감을 지금 받아요.

그러니까 증설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서로 교육부와 좀 시대상황을 끼워맞춰서 학과증설을 위한 서로의 맞추기가 아닌 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만, 저희는 목적이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육관련학과를 우선 신설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처음부터 저희가 분명히 제시를 했거든요. 생활체육의 과학화, 그리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보화하고 이러한다, 그것이 분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그렇다면 그러한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과 명칭에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車星煥 委員; 그러면요. 모집할 때 어떤 자격조건을 모집하게 되는 거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저희가 기본방향은 학생들의 수능점수,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성적 등 그런 기본 수학능력과 기초 체력검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니까 IT분야하고 잘 맞지를 않아요, 이것은. 이것은 딱히 정보학과라는 말을 안 넣더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저희가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정보와 관련된 그러한 사전지식이 충분히 있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학생을 뽑지는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컴퓨터공학과라 하더라도 그런 소양이 있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뽑을 수는 없거든요. 다만, 대학에 와서 기본적인 수학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관련학과의 공부를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선발하기 때문에.....

○車星煥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요, 생활정보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차후 나가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떠한 거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저희가 우선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

런 대로 생활체육지도자, 그 다음에 체육시설 전문관리인력, 또 체육과학의 조금 더 연구를 한다면 체육과학의 종합지식 체계연구, 또 교육,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육정보를 서비스하고 지도할 그런 전문화된 고급인력을 양성할 목적입니다.

○車星煥 委員; 예를 들어서 한 번 해보시죠? 체육정보화다, 과학화다 그랬을 때 지금 어떤 분야가 부족해서, 어떤 분야가 정보화가 덜 되어 있습니까, 체육에? 그것을 우리 시립대학교에서는 이 과를 증설로 인해서 보완할 수 있고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해 보시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김성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체육과하면 주로 그냥 볼을 차고 구기를 잘 하거나 어떤 특수한 운동능력, 이것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과를 유지하고 어떤 운동부를 유지 관리했습니다만, 외국의 경우를 보면 체육과가 그러한 운영방침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주로 체육지도자, 즉 그러한 운동과 관련된 생리학, 병리학, 운동역학,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이런 좀 종합적인 그러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이 한국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런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향후에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체육관련 교수님들께서 하실 못인데 저희들은 기본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런데요. 설립취지는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가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결정과정에 상당히 학교로 보나 우리 나라 교육정책으로 보나 지금 시립대학교에만 상당히 특혜를 준 결과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당초에 생활체육과로 올라갔다가 교육부 담

당과장의 권위에 의해서 서울시나 시립대학교에서 서둘러서 서면결의를 하고 서둘러서 회의에서 이렇게 통과시켜서 올리는 그런 자체가 정말로 처음부터 생활체육정보학과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러한 계획 아래 수년간 머리를 맞대고 정말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필요하고 시립대 장래를 위해서 필요해서 생활체육정보학과가 추진되었다면 아주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생활체육학과를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정보라는 것을 넣어서 이제 정보가 더 우선인양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한 것이 정확한 어떤 정말 말씀 잘 하신 대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것이 없이 학과가 추진되고 단지 추진된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당위론을 만들기 위해서 논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점이 우리가 믿고 서울시립대학교라는 것을 만들었던 서울시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이거죠. 다른 사립대학교나 일반 말썽 많은 대학교가 학과 증설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적어도 서울시립대학교는 다른 대학보다도 한 단계 성숙되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봐도,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봐도 정말 생활체육정보학과가 필요했구나, 아 진짜 만들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정말 시립대학교에서 만들어지면 이런 분야는 발전이 있겠구나, 잘 만들어줬다, 교육부에서도 잘 인정해 주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안잖아요. 지금 이제 기왕에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좀 좋은 측면으로 잘 해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그 정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는데요. 학과명칭 변경하고 관련하여 재료공학과가 신소재공학과로 명칭변경이 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이것은?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과거에 공과대학에 재료공학과라는 과가 많이 있었습시다만, 최근에 재료공학과라는 이름이 기존 몇 십년 동안 죽 그런 이름을 유지해 둔 대학들이 대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분야가 상당히 새로운 첨단과학과 연계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료공학과 하니까 그렇게 첨단성이 없는 그런 과라고 인식이 많아서 여러 대학들이 좀더 분명하게 과의 명칭으로서 첨단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재료공학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입생들한테 어필하는 측면이 적기 때문에 신소재공학과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춘 명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車星煥 委員; 이렇게 명칭변경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우선 해당 과의 교수님들께서 회의를 열어서 그 회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그것을 저희 기획처에 신청을 합니다. 저희 기획처는 그것을 기획위원회를 거쳐서 교무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에 변경신청을 하고 그것이 교육부의 최종승인으로서 확정이 됩니다.

○車星煥 委員; 재료공학과가 생긴 지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약 7년이 되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졸업생들도 있고 재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의 의견은 반영을.....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재학생이나 졸업생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 車星煥 委員; 어떻게 반영을 하셨지요?
-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학생들이 저희는 학교 정책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진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학생들이 교수님들에게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원했습니다.
- 車星煥 委員; 어떻게 원했지요?
-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학생들이 서명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車星煥 委員; 학생 몇 명이요?
-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재학생 전원이 서명을 했습니다.
- 車星煥 委員; 동문들은요?
- 工科大學長 金昌敏; 반영 못했습니다.
- 車星煥 委員; 동문들 의견 반영 안 된 상태에서 현지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동의에 의해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고, 학생들은 서명만 했겠네요. 교수님들이 회의해서 결정내리구요?
- 工科大學長 金昌敏; 공과대학장 김창민입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들의 대표들을 불렀어요. 그 의견을 전달한 후에 그네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그네들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전부 호응을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에 안 나와 있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전원 서명을 받아서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 車星煥 委員; 이렇게 과를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소요는 없습니까?
-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예산소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 車星煥 委員; 전혀라고는 할 수 없겠죠. 학과명칭 팻말이라도 바뀌야 되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그것은 사소한 거니까, 저희 간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페인트만 다시 칠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외에 다른 명칭변경 때문에 따르는 비용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車星煥 委員;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예산 문제는 그렇다치고, 재료공학과를 신소재공학과로 바꾸었는데 신소재공학과도 사실 일반인들은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재료공학과가 생소한 것이나 신소재공학과가 생소한 것이나 지금 거기에서 거기예요, 사실은. 신소재공학과도 사실은 이런 데 문외한인 입장에서 썩 와닿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또 차후에 몇 년 후에 또 과가 명칭이 바뀔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것을 바꿀 때는 물론 회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만, 이것이 일단 학생들이 원하고 해당 교수님들이 회의해서 결정을 내리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위원회에서 반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관계도 없는 교수님들이 여기 나서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명칭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어떤 특정그룹이나 교수들이 바꾸자고 해서 바뀌어지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상당히 학교 기본행정의 여러 가지 난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로서도 굉장히 과명칭을 바꾼다거나 어떤 특별한 조직을 바꿀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소재공학과는 학문의 성격과 그 동안 학문의 변천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그러한 명칭이라고 저희가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혹여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이렇게 쉽사리 명칭을 인기에 영합해서 바꾸거나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염려를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그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소재공학과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문적인 경영과 또 현재 여러 가지 각 대학들의 움직임,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요. 그 학교 졸업생들이 있기 때문에 동문회도 조직되어 있을 테고 조직이 안 되어 있더라도 학교에 계속 음으로 양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그렇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리고 졸업생들은 시립대학교 재료공학과 졸업생인데 신소재공학과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뭐랄까 과에 대한 그 동안 애정이 있었을 텐데 이런 점도 반영을 하셔서 요즈음은 인터넷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문들에게 얼마든지 여론을 또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좀더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좀 드립니다.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알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경영자 영업배상 및 상해보험 갱신과 관련해서요.

지금 학생과 교수 그리고 직원까지 이렇게 포함됐는데 서울시 직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되고 조교, 그 다음에 전임교수 이외에 강의전임교수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車星煥 委員; 그러면 서울시 직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발령에 의해서 서울시와 인사교류가 지금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가입을 언제 하게 되는 거죠, 몇 월경에?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올해 3월에 갱신을 했습니다.

○車星煥 委員; 갱신할 때 거기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그 때부터 숫자가 매년 바뀌어 나가죠.

○車星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금년 3월에 가입을 했으니까 만약에 4월에 서울시청으로 발령을 왔다, 그 직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현직 위주로 바뀌주는가?

○學生處長 李宇泰; 총 정원에 의해서 현재 직원인 자는 모두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서류로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보험이라는 것이 하루 넣고 안 넣고의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권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3월에 근무한 직원이 서울시청, 다른 데 일반 부서에 발령을 왔다 그러면 3월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근무를 해도 상해보험에 해당되느냐 이거죠?

○學生處長 李宇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인을 대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경영자가 만약 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배상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학교를 교직원,

학생인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車星煥 委員; 아, 그러니까 설령 4·5월에 발령을 왔다하더라도 서울시립대학교에 전입은 학생이나 교수, 직원 모두는 시립대학교에 적을 두는 순간부터 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거죠?

○學生處長 李宇泰; 네, 그렇습니다.

○車星煥 委員;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좀 하겠는데요. 누가 답변하시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사회복지관장께서 오늘 강의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車星煥 委員; 그러면 서면으로, 지금 기금후원, 물품후원, 결연후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후원내역 그러니까 후원 받은 내역, 사용내역,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리고 매월 후원자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받으실 분이죠, 그러니까 노인분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매월 지정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월별 후원 피후원자죠, 받는 사람 내역과 그분들에게 후원한 인적사항, 후원내역, 얼마만큼 후원이 사회복지관에 접수가 됐으며 실제로 이분들에게 얼마만큼 또 전달이 됐는지 이것을 자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리고 박물관장 오셨는가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박물관장님 오늘 안 오셨습니다, 수업 때문에.

○車星煥 委員; 박물관장님은 한 번도 이 자리에 안 나오셔서 예전에도 박물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랬는데.....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다른 부처와 달리 박물관은 교수님이 한 분 박물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장을 맡고 계신 분이 일본과의 교류에 주로 연관하시기 때문에 해외를 많이 나가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수업이 딱 걸려 있어서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事務處長 朴龍來; 사무처장 박용래입니다.

직장협의회가 우리 시립대학은 86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86명이 조직이 돼서 우리가 사무실 공간을 주고 또 정례적으로 모임도 하고 또 사무처장과 또 우리 총무과 직장협의회를 관리하는 그 부서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언제 설립된 거죠?

○事務處長 朴龍來;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지금 해당인원 중에 몇 %, 몇 명이 가입되어 있는 거죠?

○事務處長 朴龍來; 187명 중에 86명이니까 한 50% 되는 것 같습니다.

○車星煥 委員; 50%도 안 되네요? 이것이 혹시 직장협의

회와 학교측과 최근에 합의한 그런 게 있습니까?

○事務處長 朴龍來; 합의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무슨 합의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고 자기들 건의사항을 얘기하고 하는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후생복지.....

○車星煥 委員; 그것을 합의라고 보고 건의사항이 수렴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事務處長 朴龍來; 우선 건의사항에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는 안 됐습니다만 제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제 기억을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기들 공간을 처음 설립이 됐기 때문에 공간 배정을 하는 것을 했고, 거기에 따른 통신시설을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얘기를 한 것 중에 그쪽 직장협의회측에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식당이 많은 학생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점심시간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별도의 식당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마침 우리 다른 분야의 식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180명 직원용 식당으로 하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을 안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리자면 지금 다른 관공서들, 시 산하 관공서들은 다 있는 체력단련실이 우리 학교에는 아직 없다 하는 그런 직원후생 복지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해서 그 문제를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있는 시설을 짬을 내서 체육시설을 구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車星煥 委員; 그리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아직 결론이 안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事務處長 朴龍來; 네, 고맙습니다.

(유준상 위원장, 길기연 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吉基演;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聲九 委員; 이성구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내 여러 우수대학들을 보면 외국대학과 학점을 상호 인정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던데 우리 서울시립대도 그런 외국 대학하고 그렇게 교류되고 있습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그렇습니다.

○李聲九 委員; 더 구체적으로.....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지금 현재 제가 일본에 있는 5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대학과는 실제 학생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1년 단위로 학생을 받고 보냅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고 저희 학교 와서 강의를 받고 저희 학교에서 받은 강의는 그 학점이 그대로 저쪽으로 연계가 됩니다.

또한 지난번에 몽고 국립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학생 교류를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거기 졸업한 학생으로서 편입을 하고 나머지 4명은 저희가 받아서 여기서 학점을 받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또 만일 우리 학생이 갈 경우에는 그쪽에서 받은 학점이 우리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것은 아무래도 글로벌시대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요.

일전에 어디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마침 얘기를 하게

했습니다. 연세대학원에서 학점교환제를 하면서 미국 모 대학의 로스쿨(Law School)과 학점이수를 상호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변호사를 취득하려면 보통 미국에 가서 최소한 1년 가까이 유학을 하면서 로스쿨(Law School)을 이수해야 변호사 자격시험을 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연세대 대학원에서 미국 로스쿨(Law School)대학의 학점을 여기서 딸 수 있으니까 미국유학을 하지 않고도 미국변호사 어떻게 보면 국제변호사 아닙니까? 국제변호사를 딸 수 있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래서 상당히 국제화시대, 글로벌 시대에 또 학교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서울시립대가 상당히 이제는 연도도 됐고 또 많은 시비를 넣어가면서도 잘 뜨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더 띄울 방법이 없는가, 시립대가. 더 빨리 더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을 선호하는 많이 모아지는 학교가 돼야 될 텐데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상당히 센스 있는 발상이 아닌가, 특히 변호사나 그런 것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끌고가는 엘리트 집단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유학을 안하고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면 또 우리 시립대도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이런 거라도 해 볼 수 있으면 권해 볼 일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립대 중점 발전방향이 도시공학 관련 아닙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상당히 일반적으로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의 우수학생을 덜, 쉽게 말해서 그 사이에 노력 같으면 연·고대를 꼭 못 앞지를 일도 아닌데 아직 그것만 못하

다는 의미도 있고, 아무튼간에 너무 도시공학 쪽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덜 뜨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씩 해 보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도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게 한 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지금 제 얘기에 대해서 약간 뭐 답이랄 건 없지만 소견이나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위원님 염려를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학교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저희가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과학대학이라는 특성화전략을 수립을 해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학교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타 기초과학분야, 기초인문분야, 법학, 또 일반행정, 또 경상분야를 전혀 소홀히 해 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다만, 저희가 제일 저희 학교에서 새로 생긴 대학이고 규모가 제일 크다보니까 자식을 낳아도 새로 난 놈을 더 신경을 쓰듯이 그런 의미에서 좀 노력을 각별히 경주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도시과학대학이 우리나라 도시과학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해외견문 지원, 이것 잠깐 질의 좀 할게요.

- 學生處長 李宇泰; 학생처장입니다.
- 委員長代理 吉基演; 보면 1인당 100만원 경비 지원되었는데 올해 처음 시작된 것입니까?
- 學生處長 李宇泰; 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委員長代理 吉基演; 타 대학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 學生處長 李宇泰; 단체여행으로서 학생회 간부들이라든지, 또는 졸업여행으로서 동남아나 금강산을 관광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대학에서 최대 규모로 했던 것은 70명이 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吉基演; 시립대학에서 처음으로 이런 것을 한 것 같은데 하게 된 취지가 물론 건문을 많이 넓히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 적지 않는데 어떻게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191명?
- 學生處長 李宇泰;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2학년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들을 접수 받아서 영어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영어시험 성적으로 1등부터 200등까지를 선발해서 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했습니다.
- 委員長代理 吉基演; 총액에 여행경비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원?
- 學生處長 李宇泰; 네, 그렇습니다. 다만, 취업은 아시아지역은 안 되고 유럽이나 미주로 여행하는 학생들에 한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 委員長代理 吉基演; 하고 나서 반응 좀 체크해 보셨어요?
- 學生處長 李宇泰;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하기 전에는 여행계획서를 받았고, 갔다오고 난 다음에 여행건문기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여행건문기를 대상으로

해서 1등 1명, 2등 2명, 3등 5명의 수상자를 뽑아서 시상할 하고, 학교 신문과 홈페이지에 연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아마 내년에는 좀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그러면 보통 여행경비가 얼마 중의 몇 %를 지원한다 이런 것은 없고 무조건 100만원으로?

○學生處長 李宇泰; 네, 그렇습니다.

설문조사결과 대부분 개인경비로서 10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는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하여튼 좋은 제도 같으니까 잘 양성해서 계속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學生處長 李宇泰;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金星煥 委員; 시립대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교수님들하고 관계공무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맨 뒷페이지에 현안업무에 전자정부연구소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거랑 기존에 있는 정보기술연구소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저희가 정보기술연구소라고는 현재 그것이 공과대학에, 말씀 좀 해주시죠.

○工科大學長 金昌敏; 공과대학장 김창민입니다.

현재 공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기술연구소는 지금부터 한 6년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취지는 전자·전기공학부의 그 당시 교수수가 거의 20명에 이르렀고요. 또 그 중에서 정보통신관련 교수님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분들이 전자통신연구소 대전에 있는 ETRI라고 소위 불리우는 그곳과의 학문, 학술교류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졌고 그쪽으로부터 연구비를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 연구소를 하나 세워서 연구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 하나와, 또 하나의 다른 취지는 그 당시에 저희 서울시립대학에서 장비거점연구단이라고 해서 약 5년간 200억 연구비를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 2개를 동시에 흡수하자는 그러한 목적하에 정보기술연구소가 설립되었고 그 뒤로 꾸준히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기술연구소고요. 이번에 새로 발족되는 전자정보연구소에 대해서는 기획처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지금 공과대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기술연구소는 순수한 과학정보기술에 관한 쪽이고 전자정부연구소는 이것은 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진정보기술을 실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어떻게 행정시스템, 또는 정부시스템에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원래 올해 7월에 전자정부법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서울시에 전자정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현할 것이냐, 거기와 아울러서 open government, 또 반부패연구소가 하는 그런 투명성, 이런 것을 전자정부시스템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고 정책연구를 해야 되겠고, 한국에는 어떤 것이 가장 맞는 것인가, 어떤 가장 적합한 운영형태

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로 새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보기술연구소는 순수하게 테크니컬한 측면이고 이것은 행정적인 측면이고 그런 의미에서 구별이 됩니다.

○金星煥 委員; 그러면 조직을 구성하면 소장이나 연구원은 주로 어느 분야를 전공하신 분이 맡게 되시나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행정을 한 사람 중에서 open government 또는 전자정부의 연구나 그러한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을 저희가 모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星煥 委員; 연구소를 운영하게 되면 외부에서 받게 되는 프로젝트비용 말고 실제로 들어가는 인건비나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위에 1년에 약 2억 3,000 내지 5,000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현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산하고 있고, 주로 이제 이러한 연구소들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운영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단계에서는 seed project를 서울시나 또는 정부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고 그래서 추진할 계획인데 그런 다음에 궤도에 올라가면 프로젝트 베이스로 할 계획입니다.

아까 김성환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반부패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엔에서까지 지정연구소로 지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저희의 행정시스템이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전자정부연구소가 제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러한 open government 구현에 공헌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金星煥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쭙어 볼게요.

서울대를 위시해서 지금 국립대학교에서 국립대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러모로 모색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립대 역시 국립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폭이 커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겠다고만 늘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오셨는데요.

아예 이제 업무보고에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 자체를 아예 빼버리셨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립대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등록금 문제라든가, 특별회계 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시립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김위원님께서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지대한 관심 때문에 저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중·장기발전방향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당히 대학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급변하는 환경을 순간순간 저희가 조절을 해나가면서 이것을 수정을 하다보니까 자꾸 늦어지는데, 또 한 가지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 들께 보고한 이후에 저희로서 큰 환경변화가 소위 상암에 DMC 추진계획이 상당히 서울시로서는 커다란 명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 시립대학의 역할이 그야말로 서울시립대가 생긴 이래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지금 태스크포스를 따로 작성을 해서

거기에 연계해서 중·장기발전 방향을 다시 지금 재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9월말경에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와 연결해서 가시적인 어떠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상암 DMC하고 시립대 발전하고 아예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만, 언뜻 바로 연결되지 않거든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바로 연결은 안 됩니다.

○金星煥 委員; 구체적으로 상암 DMC하고 시립대 발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이해하기 쉽게 조금만 말씀을 해봐 주세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상암에 이제 소위 산학연 컨소시엄을 형성을 하는데 그 컨소시엄에 저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어떤 학교든 간에 주체가 돼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organization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 학교가 주체가 돼서, 전체적인 지금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마련했습니다만, 실행계획을 저희가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 실행계획에 저희 학교가 대거 참여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겹으로 보기에는 별 큰 연계가 없어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에서는 깊이 참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IT연구원, IT교육원 이런 창업보육시설 이런 것을 academic한 그러한 관점에서, 물론 마케팅 관점에서도 충분히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academic하게 이것을 어떻게 연구기관, 교육기관이 연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academic post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星煥 委員; 그것은 시립대만 참여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저희가 organization을 하죠, 어떤데 누가 post가 있어야 되니까.

○金星煥 委員; 그러면 대학부분에서는 그것을 시립대가 주도하고 있는 건가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서울시뿐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저희가 제대로 수행할 것 같습니다.

○金星煥 委員; 9월말 경이면 나온다고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9월말경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월말경에 1차 저희가 보고서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星煥 委員; 여러 가지 변화가 급격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대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계획을 계속 제대로 세우고 있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네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0월 중에는 어떠한 조금 더 현재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않겠나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金星煥 委員; 10월 중에?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金星煥 委員; 장고 끝에 악수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기를 빌고요. 시립대가 우리 이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경쟁력 있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기연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메트로폴리스 서울총회 준비사항 보고, 국제협력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산회)

○出席委員

劉俊相 趙養鎬 吉基演 金成奎
金成浩 金星煥 金判吉 盧永奭
柳辰永 劉大運 李康珍 李東秦
車星煥 朴柱雄 李聲九

○專門委員

尹炳國

○出席公務員

市立大學校

總長 李棟
教務處長 韓亨洙
學生處長 李宇泰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事務處長 朴龍來
工科大學長 金昌敏